

## News

### 한은, 기준금리 0.75%→1% 인상... '제로금리 시대' 끝났다

중앙일보

한은 금융통화위원회, 기준금리를 기존 0.75%에서 1.00%로 0.25%p 인상하기로 결정...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 단행  
이번 금리인상 배경으로 물가 상승, 가계 빚 급증,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큰 영향...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,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영향

###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들 예·적금금리 최대 0.4%p 올린다

서울파이낸스

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일부 은행들, 예금금리 최대 0.4%p 인상... 기준금리 인상분을 수신금리에 반영하나 추가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 중  
코픽스(COFIX)는 수신상품 자금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므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... 주담대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

### 농협은행,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

이데일리

NH농협은행, 지난 8월 중단한 가계 부중산담보대출 중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 
은행들, 가계대출 급증세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... 당국의 4분기 신규취급 전세대출 금액 관리대상 제외 영향도 존재

### JB금융,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
연합인포맥스

JB금융, AI기술 접목한 그룹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'데이터 허브' 구축... 그룹 계열사의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 융복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 
기존 대비 최대 56배 빠르게 분석 업무 진행 가능... 보다 정교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계획 언급

### 생보업계 "헬스케어 자회사 기준 완화해달라"...정보 "적극 검토"

연합인포맥스

정보 금감원장, 생보업계 또한 헬스케어 부문 산업에서 관련 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 강조  
이미 손보업계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 준비 중... 생보업계는 신한라이프가 분허가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 진행중... 라이나생명도 디지털 손보사 설립으로 사업 확대 움직임

### 카카오페이, 18% 오르며 20만원 첫돌파

조선일보

카카오페이, 코스피200지수 편입에 힘입어 18% 넘게 오르며 상장 후 처음으로 20만원 선 돌파... 전일 증가 21만 6,500원  
코스피200에 포함되면 동 지수에 따라 운용되는 간접투자(패시브) 자금 30조~80조원 가운데 일부가 유입돼 호재로 작용

### KTBS, 유진저축은행 2천억에 인수

매일경제

KTBS투자증권, 유진저축은행 인수 마무리 절차...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%를 가진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  
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.19%를 총 2,003억원에 사들여... 유진저축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16.3%로 업계 선두권

### SK·유안타·이베스트투자... 우리금융 증권사 누가될까

디지털타임스

완전 민영화 이론 우리금융지주, 은행 부문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에 나설 가능성... SK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 유력 후보  
대주주가 PEF로 매각과 매입 협상 가능성이 충분... 다만 G&A사모투자전문회사의 최대주주가 LS네트웍스와 LS그룹 차원 결정 여부에 따라 매물 출회 여부 결정될 것으로 예상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